

호키지 절의 역사

호키지 절은 부친 쇼토쿠 태자(574~622년)의 유지를 이어받은 아들 야마시로노 오에 황자(~643년)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이 사원의 삼층탑이 건립된 시기는 706년이지만,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 장소에 전신이 된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쇼토쿠 태자가 범화경을 강설한 오카모토노미야 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키지 절은 나라 시대에 번성하다가 이후 쇠퇴하여 근처 호류지 절의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키지 절의 장엄한 삼층탑은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8세기 초 창건 당시부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17세기 말에는 승려 신세이 엔닌과 그의 제자들이 탑을 복원하고 강당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1863년에는 쇼텐도(성천당)도 조영되었습니다. 강당에는 본존으로서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 제작된 금박 목조 십일면관음보살입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은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새로 지은 수납고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호키지 절은 1993년, 호류지 절과 함께 '호류사 지역의 불교기념물'로서 일본에서는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